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기술 국가표준화에 앞장선다.

- 지난달, 산업표준심의회에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 신설
- 농업 분야 최초의 기술심의회…스마트농업 국가표준 개발·심의 체계 구축
- 체계적·전문성 있는 연구개발 기술 표준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달,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 분야 최초의 기술심의회인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는 우리나라 표준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의 범부처 위탁 체계에 따라 농업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돼 농촌진흥청이 주관, 운영한다.

앞으로 농업용 전자통신 기술 분야와 데이터에 기반한 농식품시스템 기술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및 폐지와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의 국가 산업표준화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 신설로 그동안 독립 기술심의회가 없어 유사 산업 분야 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하던 스마트농업 분야 관련 표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따라 기계, 전자, 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등 농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심의회 신설로 국내 스마트농업 기술 표준 개발부터 표준 제·개정 검토와 심의·고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농업과학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 산하에 ‘농업용 전자통신 전문위원회’와 ‘데이터기반 농식품시스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위원회별로 세부 기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스마트농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표준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다양한 국내 전문가로 구성될 각 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농산업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가표준으로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 신설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스마트농업기술 표준 심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며 “민관 협력하에 농업 현장과 농산업계 수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표준화해 우리 스마트농산업 시장 경쟁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연구정책국 스마트농업팀	책임자	팀 장	윤남규 (063-238-0850)
		담당자	연구관	최승렬 (063-238-0851)
				